

# 일본인이 쓴 일본의 진정한 모습

일본학연구소 펴냄 '일본학 총서'

한림대 한림과학원의 일본학연구소(소장 지명관)가 기획하고 소화출판사(대표 고화숙)가 발간하는 일본학총서가 '없다', '있다'로 대별되던 '일본알기' 흐름에 조응한 파문을 던지고 있다. 일본학총서는 "일본을 알고 나서 일본을 비판하자"는 취지로 95년 5월 첫 책 《일본문화의 숨은 형(形)》(가토 슈이치 외 지음)을 펴낸 후 올해 1월 《지구 온난화를 생각한다》(우자와 히로후미)까지 모두 18종이 출간됐다.

일본학연구소는 일본을 바르게 알고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학문적·문화적인 교류를 모색하고자 94년 4월 출범했다. 일본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만 있을 뿐 일본의 진정한 모습을 소개한 양서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일본학총서는 '일본인이 쓴 일본에 관한 책'을 기준으로 하되 일본 문화나 경제·사회 등에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을 유지한 책을 골라 번역한다. 텍스트 선정은 지명관 소장을 비롯해 김태준(동국대)·노영희(동덕여대)·서정완(한국외국어대) 교수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이와나미(岩波)와 고단사(講談社)의 책이 주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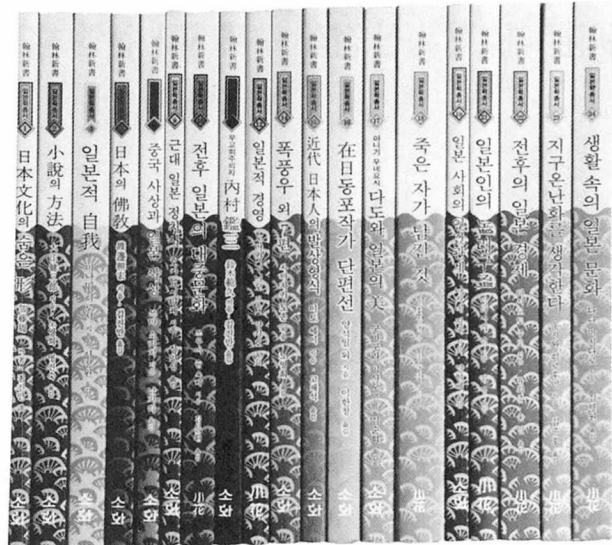
총서의 내용은 일본인이 파악한 자국의 사회·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일본문화의 숨은 형》 《일본의 불교》(와타나베 쇼코) 《무교회주의자》(스즈키 노리히사) 《중국사상과 일본사상》(쓰다 소키치)은 불교·기독교·전통문화 등 일본인의 다양한 사고체계에 깊이있게 접근한 책이다.

또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많은 예를 들어 이해를 돕는 《일본사회의 인간관계》(나카네지에) 《일본적 자아》(미나미 히로시) 《일본적 경영》(오다카 구니오) 《일본인의 논리구조》(이타사카겐) 《전후 일본의 대중문화》(쓰르미 슌스케)가 한 갈래를 이룬다.

《소설의 방법》(오에 겐자부로) 《재일동포작가 단편선》(양석일 외) 《폭풍우 외》(시마자키 도순) 《죽은 자가 남긴 것》(이회성)은 문학작품을 통해 일본사회를 투영하고 있다. 일본의 특징적인 문화양상에 대한 해석이 돋보이는 《다도와 일본의 미(美)》(야나기 무네요시) 《생활 속의 일본문화》(다미 미치다로) 등 여러가지 주제를 넘나든다.

이 가운데 《재일동포작가 단편선》과 《죽은 자가 남긴 것》은 일본문단에서의 재일동포문학의 비중을 확인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재일교포문학을 우리 문학권 바깥의 작품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이들은 스스로를 '재일조선인'으로 부르면서 조선인으로서 문학적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최근 이회성·이양지의 뒤를 이어 유미리가 일본의 유명 문학상인 '이쿠다가와(芥川)상'을 받아 관심을 환기시켰다.

가장 최근에 펴낸 《지구온난화를 생각한다》(우자와 히로후미)는 자국 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에 기울인 일본 지식인의 관심을 알 수 있다. 지구 온난화와 20세기 문명과의 관계, 대기의 균형회복, 지구 온난화 저지 방법 등 주제의 무거움에 비해 내용은 자동차, 가구 등 생활용품의 전과정을 추적하여 성장위주의 서구지향적 발전개념을 뒤집는다.



일반인에게 널리 보급되도록 문고판으로 출간했는데, 내년까지 우선 1차분 50권을 완간할 예정이다. 《일본인이란 무엇인가》 《오늘의 일본교육》 《청일전쟁》이 출간 준비를 마쳤다. 지명관 소장은 "현재는 전공자들 중심으로 읽히고 있지만 쉬운 내용이라 곧 대중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지구온난화...》처럼 인류 공동의 문제에 대한 일본 지식인의 생각을 많이 담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썸 되는 짙막한 평론들인데 우리나라의 풍속·언어·문자·역사 속담 등 대산의 광범위한 관심과 박식함을 엿볼 수 있다. 각종 어휘의 어원에 대한 고찰도 흥미롭고 '오자(誤字)의 작난(作亂)이나 '고서(古書)의 오류'는 예나 지금이나 문제였음을 느끼게 한다.

《조선역사론》에서는 유물사관에 기초한 대산의 역사연구 방법론과 그에 기초한 역사론들을 읽을 수 있다. 정몽주를 양반계급 형성의 주역으로 주장한 것이나 단재 신채호의 역사론에 대한 비판 등이 눈길을 끈다.

3부 <국어학과 국문학>에서는 남한에서는 금서로 되어 있던 《정음발달사(초)》(서울신문사)를 일부분이나마 읽을 수 있다. '박연암의 예술과 사상'은 대산의 문학관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문학인들에게 조선어 공부를 먼저 하라고 제언한 글도 빼있게 읽힌다.

4부에 수록된 <서문·서평·기행>에서는 대산의 성격과 가정환경, 교우관계를 엿볼 수 있다. <아들로서 본 아버지>라는 글을 통해 열여섯에 낳은 장남을 대하는 흥명희의 인간적인 면모와 아버지에 대한 대산의 평가가 읽을 수 있어 흥미롭다. <박남정>

현대실학사/A5신/432면/13,000원

## '조선학' 개척한 대산의 학문세계

흥기문 지음 《흥기문 조선문화론선집》

일제 말기의 대표적인 국문학자이며 벽초 흥명희의 장남이기도 한 대산 흥기문(1903~1992)이 1947년 월북하기 전 남한에서 발표한 글들을 묶었다(김영복·정해림 편역). 《정음발달사》 《조선문화총화》 등을 대표작으로 하는 대산은 일제식민시대에 조선어 문법을 연구하는 데서 뜻을 일으켜 국어학·언어학·음운학·한문학·국문학·역사학 등으로 학문적 관심을 넓혀가고 심화시켜 간 대학자다. 1947년 월북한 대산은 사회과학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북한의 고전번역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한에서는 그의 학문적 업적은 사장된 실정이었다.

이 책에서는 <조선문화론> <조선역사론> <국어학과 국문학> <서문·서평·기

행·기타>의 4부분으로 나누어 그동안 묻혀있었던 대산의 대중적인 논설과 학문적 업적을 고루 담아내고자 했다.

<조선문화론>은 요새말로 치면 '문화시론'

## 아름답고 편안한 삶의 공간을 위한 색

박돈서 지음 《건축의 색·도시의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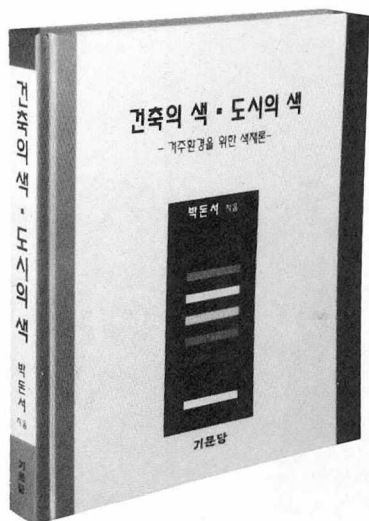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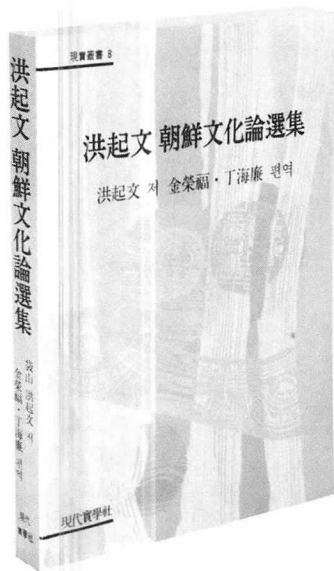
어떤 대상에 대한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이미지는 색채가 결정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건축물과 도시의 색채는 어떠한가. 원칙도 없고 통일성도 없는 색채사용이

# '쉬운 책'과 '어려운 책'의 과제

이중한

서울신문 논설위원·출판평론가



주는 부자연스러움, 그것이 주는 무질서와 스트레스, 아니면 삭막하기 그지없는 콘트리트.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저자는 우리나라 건축 및 도시의 색채를 이렇게 특징짓는다.

〈건축의 색채〉〈도시의 색채〉〈색채시론〉으로 나누어 우리나라 건축과 도시의 색채와 관련한 글들을 수록한 이 책은 전공자나 건축관련업자뿐 아니라 집이나 빌딩, 상가를 짓거나 새단장할 때 어떤 색깔을 사용해야 할 지 막막해하는 일반인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된다.

건축이든 도시든 저자가 주장하는 바람직한 색채는 주변의 다른 것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색채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전통 주거공간이나 건축물들이 지닌 색채감각은 너무도 율동하다. 전통색을 찾는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전통 건축들이 지녔던 색채 선택의 정신은 계승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

이런 관점에서 저자는 우리나라의 주택들,

아파트, 지하철 역사 등 건축물의 색채가 지니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빨강 파랑 녹색 지붕의 놓여준 주택, 현란한 그림과 튀는 디자인으로 강한 자극을 주는 아파트 외벽 등.

도시의 색채는 어떠한가. 보라색 시내버스, 노란 지붕을 씌운 택시 정류장, 공중전화부스, 크기도 높이도 색깔도 다 제각각인 어지러운 간판들. 이런 가운데 우리 도시는 개성도, 세련미도, 통일성도 없이 뒤죽박죽으로 뒤엉켜 있는 것이다.

사진을 통해 색채 사용이 잘되고 못된 국내외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해와 설득력을 높인 것도 이 책의 특징.

색채를 선택하는 심미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원칙적인 사항들은 〈색채시론〉을 읽음으로써 보충할 수 있을 듯하다.

건축이나 도시의 색채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왜 필요한지, 또 색채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꼼꼼하게 알려주는 책이다. 〈박남정〉

기문당/A5변형/238면/15,000원



우리 나라 전통마을의 경관은 자연스럽고 친근감을 주며 주위환경과 융화되고 있다.

**쓸 만한 책 내기가 점점**

**어렵다. 출판은 마치**

**재미있고 쉬운 책내기**

**업종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사고력을 키워온 독서력이**

**있으면 '어려운 책'이라는**

**표현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어려운 책'을 읽는**

**능력을 키우는 일, 그것이**

**출판사 기획자의 과제이다.**

최근 나는 한 출판사에서 독일의 저명출판사 청소년시리즈 번역 여부에 대한 자문을 의뢰받은 일이 있다. 자신의 삶을 모험적으로 개척하고 창조했던 사람들의 전기(傳記)총서였다. 알려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로서는 낯선 명단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물론 출판을 권유하지 않았다. 낯선 사람들의 이야기여서가 아니라 그 책 내용의 수준 때문이었다. 그들에게는 청소년도서지만 이를 번역하면 우리에게는 전문서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수없이 많다. 극단적 예를 하나 들자면 20세기의 대표적 문화인류학자 마가레트 미드의 저서들이다. 미드의 저서는 대부분 미국의 20대 초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 《레드 북》에 먼저 소개되고 씌어진 글이다. 우리의 경우, 이것이 여성지에 연재됐다면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상상해 볼 필요조차 없다. 미드의 저서는 지금 세계사상전집에 들어 있고 요즘엔 전혀 팔리지도 않는다.

우리나라에선 톰 클랜시의 테크노 스릴러도 실패할 때가 있다. 대중적인 재미가 있는 이 소설에도 때로는 전문지식들이 수십페이지씩 나열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렵다고 느낀다.

이 현상은 우리 출판의 심각한 장벽이다. 쓸 만한 책내기를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이로부터 출판은 마치 재미있고 쉬운 책내기의 업종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 들게 한다.

그러나 지금 필요하고 또 앞으로 살아남을 책은 우리 시장에서 지금 '어렵다'고 말하는 책들이다. 이 점은 좀더 분명하게 따지고 논의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렵다'는 것 역시 한두가지의 문제는 아니다. 독자가 기본용어와 개념을 모를 때에도 어려워진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개념일 때는 우리말 고르기가 힘들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본질적인 것은 읽기 능력이다. 읽는 훈련이 돼 있고, 이로부터 '사고력'을 키워온 독서력이 있으면 어려운 책이라는 표현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이 독서력에서는 오히려 가볍고 쉬운 책들을 읽기가 어려워진다. 실제로 무협소설을 전혀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협소설의 소설쓰기 양식은 아무것도 생각할 것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영상물처럼 그저 씌어 있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되는 읽기이다.

문제는 한국수준에서의 '어려운' 책들을 읽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앞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시대에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질 것이란 사실에 있다.

따라서 나는 어려운 책을 어떻게라도 좀 덜 어렵게 만드는 연구가 있어야 하고 때로 어렵더라도 강요해서 읽히는 커리큘럼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이는 누가 해야 할 작업인가. 이것이 출판사 기획자의 과제이다. 근자에는 원고 디스켓을 받아 출판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래서 출판사 일은 단순해지고 경제적이 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가장 구식으로 출판기획자가 원고도 읽고 고치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이 작업은 오늘의 한국 경제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작업이다. 읽기 쉬운 책으로 살 길은 없다. ❖